

최근 고용구조 변화의 요인분석

강승복 · 정성미*

I. 머리말

최근 노동시장이 외적으로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적 부분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고용관련 지표의 흐름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4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수 증가는 좀처럼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조한 취업자수 증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¹⁾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는 연령, 학력 등 모든 계층에서의 전반적인 고용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저조한 고용증가의 원인이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고용증가가 미진해서인지, 아니면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학력 등 노동공급적 측면과 산업 등 노동수요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겠다.

*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06년 8월호 참조.

II. 최근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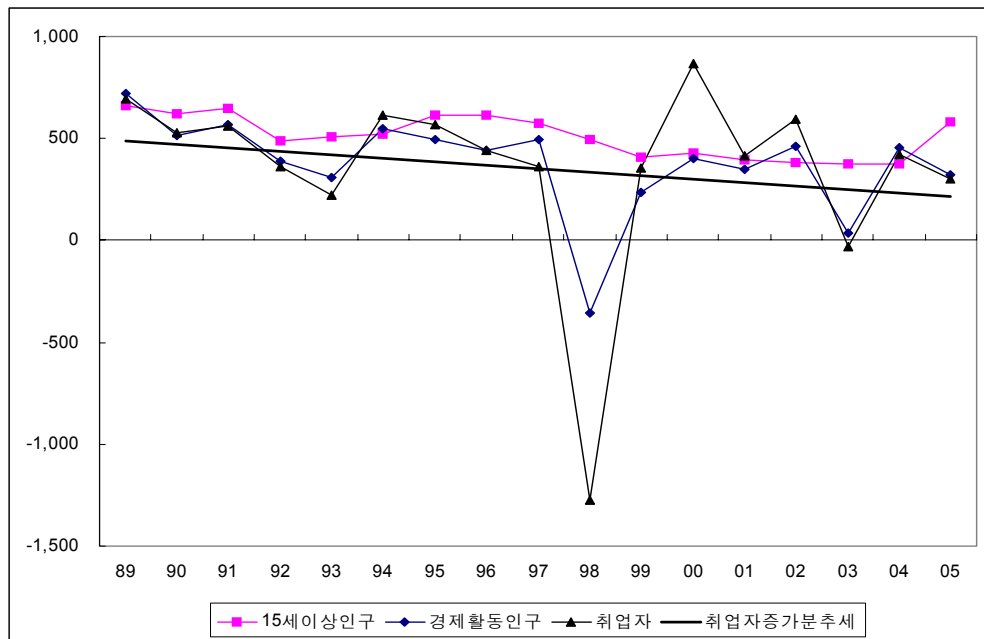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198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를 비롯하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1989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고용률이 비교적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자수 증가 및 증가율의 장기적 추세선을 그려보면 노동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위축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고용관련 지표의 증가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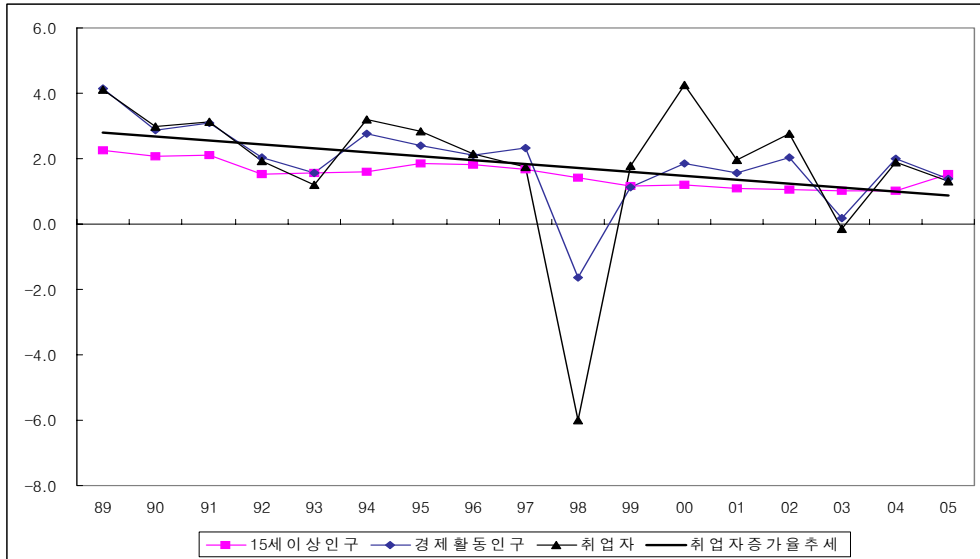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2] 고용관련 지표의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II. 노동공급 측면에서 본 고용구조

먼저 공급 측면에서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이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고용 성향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분해해 보자. 고용률(ER)은 아래와 같이 생산가능인구(N) 중 취업자(E)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ER = \frac{E}{N}$$

다음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를 연령·학력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개별 계층을 i 라 하면, 고용률 ER은 다시

$$ER = \frac{\sum E_i}{\sum N_i} = \frac{\sum ER_i \times N_i}{\sum N_i} = \sum [ER_i \times (\frac{N_i}{\sum N_i})]$$

가 된다.

여기서 $\frac{N_i}{\sum N_i}$ 은 전체 인구 중 개별 계층 i 의 비중을 나타내는 인구구성비이므로, 이를 P_i 로 나타내면 고용률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R = \sum (ER_i \times P_i)$$

이제 특정 기간 동안 고용률의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Delta ER = \sum (\Delta ER_i \times P_i) + \sum (ER_i \times \Delta P_i) + \sum (\Delta ER_i \times \Delta P_i)$$

여기서 $\Delta ER_i \times P_i$ 는 인구구성비가 고정되었을 때 순수히 고용률의 변화로만 설명되는 부분, $ER_i \times \Delta P_i$ 는 고용률이 고정되었을 때 순수히 인구구성비의 변화로만 설명되는 부분, 그리고 $\Delta ER_i \times \Delta P_i$ 는 인구구성비와 고용률이 모두 변화하였을 때 설명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용률의 변화를 1989~1997년, 1997~2005년, 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로 나누어 보면, 1989년의 58.0%였던 고용률은 1997년에 60.9%를 기록하여 2.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고용률 자체의 변동은 1.0%포인트, 인구구성비 변화는 1.5%를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7~2005년에는 고용률이 60.9%에서 59.7%로 1.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 중 고용률 자체의 변동은 -2.4%포인트, 인구구성비 변화는 1.2%포인트 기여하였다. 한편, 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중 고용률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989~1997년에는 고용률 변동과 인구구성비 변동이 비슷하게 전체 고용률 변화를 주도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로 고용률 변동 자체가 전체 고용률 변동을 이끌고 있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용률 변동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 고용률의 변동을 보면, 1989~1997년에 2.9%포인트 증가한 전체 고용률 중 고용률 자체의 기여분은 0.3%포인트, 인구구성비 기여분은 1.9%로 나타났으며, 1997~2005년에 1.2%포인트 하락한 고용률 중 고용률 자체의 기여분은 -4.3%포인트, 인구구성비 기여분은 2.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력별로 보아도 고용률 변동 자체가 전체 고용률 변동을 이끌고 있는 것과 외환위기 이후 고학력화는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자 변동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Delta E = \sum (\Delta E_i \times P_i) + \sum (E_i \times \Delta P_i) + \sum (\Delta E_i \times \Delta P_i)$$

취업자 변동분을 연령별로 분해한 <표 1>을 보면, 1989~1997년간 취업자수 증가는

3,652천명인데 반하여 1997~2005년간 취업자수 증가는 1,643천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한편, 1989~1997년간의 취업자 증가분을 100으로 했을 때 고용률 증가 기여분은 8.4%,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은 87.7%로 분석되며, 1997~2005년에는 고용률 증가 기여분 -52.0%, 인구구성비 기여분이 154.9%로 나타나, 취업자수 증가폭의 하락은 주로 고용률 자체의 변화가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구구성비 변화보다는 모든 계층에서의 고용률 저하가 취업자 변화를 주도하는 현상은 학력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결과를 나타낸다(표 2 참조). 즉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효과나 고학력화가 진전되어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 취업자 변동분에 대한 연령별 분해

(단위 : %)

취업자 증가수	1989~1997			1997~2005			2005 상반기~2006 상반기		
	3,652천명(100.0)			1,643천명(100.0)			307천명(100.0)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8.4	87.7	4.0	-52.0	154.9	-3.0	9.3	88.6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를 사용하여 계산.

〈표 2〉 취업자 변동분에 대한 학력별 분해

(단위 : %)

취업자 증가	1989~1997			1997~2005			2005 상반기~2006 상반기		
	3,652천명(100.0)			1,643천명(100.0)			307천명(100.0)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고용률 변동 기여분	인구구성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2.1	91.4	6.5	-90.2	194.8	-4.5	-26.8	126.4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를 사용하여 계산.

Ⅲ. 노동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구조

1.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경제성장(GDP) 1단위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원된 취업자수(E)를 나타내는 취업계수(EC)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C = \frac{E}{GDP}$$

이 식을 통해 취업자 증가분(ΔE)은 아래와 같이 GDP가 고정되었을 때 순수히 취업계수 변화로만 설명되는 부분(ΔEC×GDP), 취업계수가 고정되었을 때 순수히 GDP의 변화로만 설명되는 부분(EC×ΔGDP), 그리고 취업계수와 GDP가 모두 변화하였을 때 설명되는 부분(ΔEC×ΔGDP)으로 분해할 수 있다.

$$\Delta E = [\Delta EC \times GDP] + [EC \times \Delta GDP] + [\Delta EC \times \Delta GDP]$$

<표 3>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89~1997년과 1997~2005년, 그리고 2005년 상반기~2006년 상반기 동안의 취업자수 변동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업자수 증가는 취업계수 변동보다는 경제성장 변동 자체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취업계수 변동은 취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계수 변동 기여분 비중의 절대값이 1989~1997년보다 1997~200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판단해 볼 때 경제구조가 노동집약적 패턴에서 노동절약적 패턴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2006년간의 변화에서도 취업계수 하락의 효과가 경제성장률 둔화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취업자 변동분에 대한 취업계수 및 경제성장 부분으로의 요인분해

(단위 : %)

취업자 증가	1989~1997			1997~2005			2005 상반기~2006 상반기		
	3,652천명(100.0)			1,643천명(100.0)			307천명(100.0)		
	취업계수 변동 기여분	경제성장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취업계수 변동 기여분	경제성장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취업계수 변동 기여분	경제성장 변동 기여분	교차변동 기여분
	-154.5	375.0	-120.5	-282.9	490.2	-107.3	-302.1	419.3	-17.1

자료 : 통계청, KOSIS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산.

2. 취업계수

취업계수란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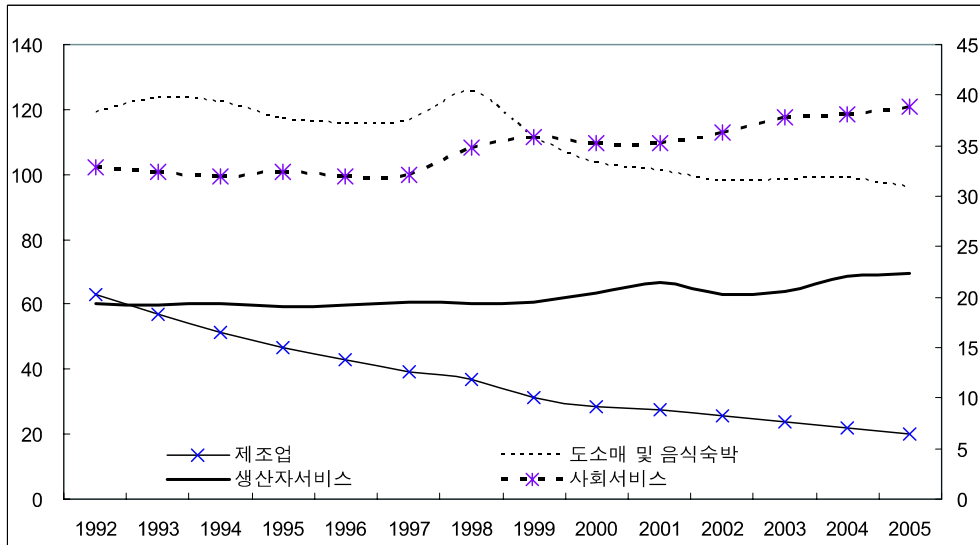
[그림 3]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취업계수의 하락은 지속되고,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의 취업계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생산자서비스업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사회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용유발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계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나 자본집약적 생산 증가 등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등의 고용흡수력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업에서의 취업계수 하락추세가 인력감축에 기초한 생산성 증가의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림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십억)



- 주 : 1) 취업계수=취업자/GDP(10억원).
- 2)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 3)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 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좌측 축, 나머지는 우측 축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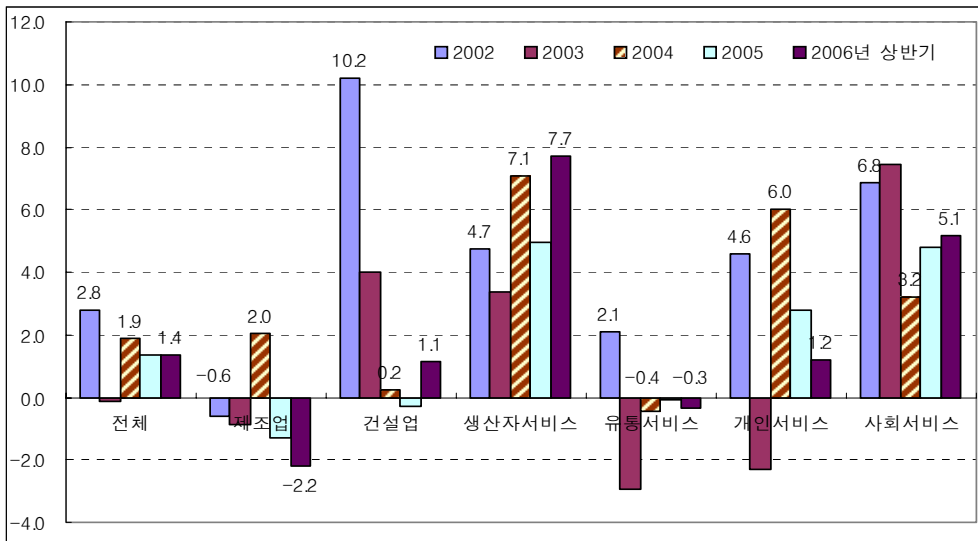
3.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경제 양극화를 배경으로 한 산업별 불균등 성장으로 초래된 고용창출 능력의 하락일 것이다. 고용창출이 어느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지의 문제는 고용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과 고용 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고용구조의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2년 눈에 띄게 고용이 확대된 이후 취업자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에 걸쳐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고용구조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오던 제조업과 고용안정판의 역할을 해오던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의 침체는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보다 더 낮게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4] 산업별 취업자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주: 1)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2)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3)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산업별 고용구조를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분으로 살펴보면, 2002년의 전년대비 취업자가 59만 7천 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가장 좋았던 반면, 2002년 높은 취업자의 증가의 반사효과로 2003년 취업자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여 고용사정이 가장 나빴음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이후 취업자 증가는 매년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취업자증가는 전년동기대비 30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고용규모가 큰 제조업에서의 고용비중은 여전히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을 전자전기·경공업·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전기와 경공업의 경우 2002년 이후 고용규모가 증가하다가 2006년 상반기에 두 부문 모두에서 고용규모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

다.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고용규모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건설업의 경우 고용사정이 가장 좋았던 2002년에 16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인다.

〈표 4〉 산업별 취업자 증가분

(단위 : 천명, 전년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전체	416	597	-30	418	299	307
농림어업	-95	-79	-120	-125	-9	-65
제조업	-28	-26	-36	85	-56	-94
전자전기	-13	18	50	55	4	-19
경공업	-31	40	62	73	38	-30
중화학	16	-84	-148	-42	-98	-46
전기가스수도	-6	-6	24	-4	-1	-11
건설업	2	161	70	4	-5	20
생산자서비스	176	108	80	175	131	209
금융보험	8	-26	17	-13	8	54
부동산임대	30	32	10	30	44	31
사업서비스	139	102	52	158	79	124
유통서비스	160	109	-158	-23	-4	-17
도소매	98	60	-120	-66	-57	-32
운수	46	26	-56	43	22	1
통신	16	23	18	-1	31	38
개인서비스	161	161	-85	216	106	46
음식숙박	24	64	-26	76	1	4
오락문화	28	25	7	33	43	2
가사	20	9	-23	-67	5	33
기타공공개인서비스	89	63	-44	174	57	7
사회서비스	44	166	192	89	138	152
공공	-57	1	55	11	23	19
교육서비스	45	99	149	23	62	100
보건사회복지	56	67	-12	55	53	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서비스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는 꾸준히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고용성과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 중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중 교육서비스에서의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고용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던 유통서비스 중 도소매서비스 부분의 침체가 두드러진다.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용구조 자체는 양적으로는 선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앞에서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고용 증가는 취업계수의 완만한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즉, 이 분야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고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 내에서도 개인이나 유통서비스업에서 생산자 및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에서 낮은 생산성-낮은 질의 고용-낮은 임금의 악순환구조(Baumol's disease of service economy)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더 높이는 방향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²⁾.

IV.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의 정체 원인을 노동공급적 측면과 노동수요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적 측면에서 보면, 비록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지만 고용률을 비롯하여 비경제활동인구율, 취업자 등에서의 연령별 구성도 더불어 변화하고 있어 아직까지 전체 고용지표의 변화 중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학력별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위축의 원인은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연령계층이나 학력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성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의 둔화보다는 취업계수의 빠른 하락에 따라 고용창출 능력이 이전보다 둔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별 고용구조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중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정책 등을 통해 취업계수가 높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적 고용창출 산업이며 아직까지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급격한 약화를 멈추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11]**

2)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06년 1월호 참조.